

광주-대구, 자동차·미래전략산업 '상생동맹'

태양광·에너지·광 전자·ICT·의료·디자인 등 달빛동맹 강화 경제분야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와 대구시가 경제 분야의 달빛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와 미래 전략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대구시와 지능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미래전략산업 등 경제분야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양 시장이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2016년도 국비 확보 활동 중 국회에서 만나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양 시는 지능형 자동차, 전기 및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국제사업 발굴, 법 제도 개선과 보급 확산 여건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

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양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분야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분야 등에 집중하고,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광·전자, ICT, 의료, 디자인분야에 대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모델 공유와 노사협력을 상호 연계한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신·노사문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시험장비의 사용절차 간소화와 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키로 해 ▲광주지역 부품업체는 대구시가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에 구축하고 있는 진동시험기 등 시험장비 25종에 대해 ▲대구 부품업체는 광주시가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구축하고 있는 클린디젤 관련 연구장비를 별도의 이용료 없이 활용하는 등 양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시험장비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광주와 대구는 2009년부터 달빛동맹 협력 사업을 시작, 2010년에는 3D 융합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대구IT와 광주 광산업을 정부과제로 공동 추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자 노트

동구청장 재선거 흑색선전 度 넘었다



이종형 정치부 기자

‘음견군폐’(邑犬群吠)라는 말이 있다. ‘마을의 개가 무리지어 짖는다’는 뜻으로, 소인(小人)들이 남을 비방(誹謗)함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다. ‘책임즉명’(責人則明)이라는 한자성어도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덮어둔 채 무자정 남방(南放)한다’는 뜻이다. 이들 한자성어가 가진 함축적 의미는 한 마디로 말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헐뜯고 비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 4·13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판을 보고 있다면 이들 한자성어가 떠오른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동구청장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등 네거티브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 안팎에선 재선거가 막을 올리기 전에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요즘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만날 때마다 주요 화제는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각종 소문들’이다. 오죽하면 ‘내년 재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99.9%는 또다시 재선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까.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당시 일부 후보는 상대방 가족사까지 들춰내면서 흠집내기에 혈안이 됐다. 네거티브전 외에 자신들의 정책으로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유권자는 현명했고, 결과는 뻔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학습효과를

얻었다면 이번에는 달라져야 할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이번엔 온갖 루머들이 더욱 교묘해지고 훨씬 자극적으로 진화했다.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이 최근 구청 조직개편을 단행, 고향 후배를 전략인사(승진)하려 했다는 소문이 한 예다. 물론 흑색선전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승진·전보인사는 전임 정장이 구상한 것이었다. 임 권한대행은 전임 정장이 짜놓은 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려 한 것뿐이었다.

또다른 출마예정자 A씨의 경우 ‘건강이상설’이 돌았는데, 최근 두 차례 연이어 쓰러져 병상에서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이 소문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다. 일단 상대 후보를 물어뜯어 흠집을 내놓은 뒤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다행히도 유권자들은 ‘누가 이런 소문의 근원지인지,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눈치다. 유권자들은 또 ‘흑색선전에 열중하는’ 후보는 절대 뽑아선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출마예정자들이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지나친 마타도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돌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후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golee@kwangju.co.kr

‘차 100만대 사업’ 추진

민·관·정 정책 간담회

새누리당 광주시당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정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심판규)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성공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주최로 열리는 이날 정책 간담회는 내년부터 추진될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광주시, 새누리당 중앙당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의 성공을 위한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는 손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과 성백섭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박형민 새누리당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조병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 부장 ▲곽근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 사무관 ▲김홍업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정종현 자동차산업발전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정승 새누리당 광주시당 서구를 담당위원장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참석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참사 특조위 청문회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고액 지방세 체납 개인·법인 104명 공개

3000만원 이상 광주 44명 전남 60명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0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광주시는 14일 개인은 29명이 25억원, 법인은 15명이 18억원을 체납하는 등 체납액은 모두 43억원이라고 밝혔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과 법인 각 1명 등 2명에 달하고 있다. 체납자가 종사한 업종은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규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기 때문에 대상 숫자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는 개인 74명, 법인 40명 등 114명

에 달했으며 체납액도 101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이상국(45)씨가 지방소득세 등 5억5300만원을 체납해 1위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은 부동산 업체인 (주)복암(임수택)으로 취득세 등 6억7000만원을, 건설업을 하는 (주)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이영창)가 2억29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20억원에 불과한데다 강제징수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명단공개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신규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해 그나마 공개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 총액은 520억원여이다.

전남도도 14일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34명과 법인 26명 등 6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발행된 전남도 도보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중 개인은 우정수(광양)씨가 1억9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대한건설(대표자 박상수)이 7억2500여만원으로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티엠에스중공업(권순미) 2억3400여만원, 씨씨케이중공업(정병철) 1억5500여만원, 융프라운관광호철(김상수) 1억5300여만원, 제이에스중공업(박동준) 1억600여만원 등 1억원 이상 체납 법인은 5명이었다. 전남도의 이날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710억원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렴도 향상 고강도 개혁 착수

공무원 노조 참여 특별기구 만들고 인사제도 보완

전남도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제도를 보완해가기로 했다. 지사의 권한을 상당부분 실·국장에게 넘기고 주말근무를 최소화해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올해 청렴도 조사 결과 전남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14일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인사제도 개선 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9일)중공 출장 중 발표된 담화문이 ‘도지사는 잘 하려 했는데 직원들이 잘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인식은 옳지 않다”고 전남도청 공직자들에게 사과했다.

담화문 발표 후 도청 노조 게시판에는 ‘공직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이 책임을 전제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이 지사는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잘 해 왔다.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다.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청렴도 최하위권)때우 아픈지만 업무방식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대책도 제시해 “(청렴도 최하위권)때우 아픈지만 업무방식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 방향과 원칙을 지키되 쇄신해 나가겠다”며 “청렴도 제고는 갑사실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여러 직원들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노조에게 역할을 요청하고 외부의 진단과 조언도 듣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소아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